



강사소개



손봉호 교수

손봉호 교수는 1938년 경북 포항에서 출생하여 1961년 서울대학교를 졸업하였고, 이후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신학석사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1970년 네덜란드 자유대학교 철학부 전임강사를 비롯하여,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서울대학교 사범대학교 교수 및 명예교수로 봉직하였으며, 이후 한성대학교 이사장, 동덕여대 총장을 역임한 바 있다. 특별히 현대 한국 철학사조를 주도하였으며, 한국칸트학회 회장, 한국철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였고, 기독교지성으로서의 인간 삶에 대한 철학적 성찰을 다루는 등 삶의 형장에서 실천적 지성의 역할을 강조하여, 1994년 기독교윤리실천운동본부 공동대표를 역임하였고, 샘물호스피스 이사장을 현재까지 수행하고 있다.

개혁주의 교회와 정치참여

2008.10.31. 종교개혁 기념 세미나. 고신대

1. 정치참여에 눈 뜨는 한국 기독교

최근 한국 기독교계에서도 정치참여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물론 진보적인 기독교인들 간에는 비교적 일찍부터 정치참여에 대해서 논의하고 실제로 어느 정도 참여했다. 그러나 복음주의나 개혁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교회들에서는 정치에 대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무관심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 왔다. 그런데 최근의 변화는 주로 이제까지 정치에 대해서 방관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던 복음주의 혹은 보수적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그 두드러진 특징이다.

한국 보수적인 기독교계에서 이런 변화가 생겨나는 원인에는 한국 기독교계 내부의 요인과 한국 사회에서 작용하는 외부적 요인이 있다.

외부적 요인으로는 우리 사회의 많은 분야에서 민주화가 활발하게 진척됨에 따라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집단과 계층의 외연이 넓어지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과거에 지방자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정치활동 무대와 통로가 제한적이었다. 가능성이 크지 않았으므로 지망생도 많지 않았다. 다만 좀 특이한 사람들만이 현실정치에 참여한다는 생각이 일반화되어 있었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고 시민운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정치활동의 범위와 가능성이 과거 어느 때보다 더 커

졌다.

그리고 과거 한국 정치는 매우 부패해서 정치인에 대한 사회의 시선이 곱지 않았고 자존심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정치 참여를 기피하는 경향이 강했으며, 특히 자신의 신앙을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더욱 정치참여를 주저할 수밖에 없었다. 물론 지금도 한국 정치에는 비도덕적이고 비신사적인 요소들이 많이 남아 있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개선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정치참여에 대한 거부감도 과거에처럼 그렇게 강하지는 않게 되었다.

내부적 요인으로는 한국 기독교가 빨리 성장하여 사실상 한국의 가장 강력한 종교가 되었고 사회와 문화 전체에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이 상당히 커졌기 때문에 정치에도 이제 어느 정도 간섭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 것을 들 수 있다. 핍박받는 소수의 위치에서 어느 정도 특권을 향유할 수 있는 위치에서게 됨에 따라 하늘나라에만 소망을 두었던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이 세상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기 된 것이다.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한 편으로는 성장한 힘으로 사회와 문화를 위하여 공헌해야 하고 후진상태에 있는 한국 정치를 성숙케 해야 한다는 책임의식을 갖게 되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 <기독교 정치연구소>가 설립되어 기독교 정치 참여를 이론적으로 논의하고 시민운동 단체인 <공의정치 포럼>은 이제 한국 기독교도 미래의 정치인을 배출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 편으로는 이 땅위에서의 삶이 그렇게 힘들지 않게 되자 관심과 가치관이 어느 정도 세속화되었다고 부정적으로 비판할 수도 있다.

정치적 야심을 가진 기독교인들이 수적으로 늘어난 기독교 인구를 이용하여 정치계에 진입해 보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이런 변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행사하는 것이 최근에 조금씩 자라고 있는 개혁주의적 세계관이라 할 수 있다. 비록 한국 장로교는 개혁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그동안 복음주의적 이론론을 별로 극복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박윤선 박사과 고려신학교가 개혁주의 신학사상을 한국 기독교계에 도입했고 학생신앙운동(SFC)을 통하여 각 분야에서 활동하게 된 평신도들에게 확산되어 개혁주의는 조금씩 자리 잡기 시작 했다. 개혁주의 세계관 운동이 젊은 기독교인들과 전문인들 사이에 조금씩 확산되고 있어 기독교의 정치참여에 대한 한국 기독교계의 거부감을 약화하는데 어느 정도 공헌했다 할 수 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 학문연구회>, <기독교경영연구회>, <기독교대학설립동역회> 등도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개혁주의적 세계관에서 활동하거나 그 입장을 표방하고 있다.

2. 개혁주의와 정치

개혁주의는 대부분의 다른 기독교 신학이나 사상들보다 정치에 대해서 더 큰 관심을 갖게 하는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바로 개혁주의가 다른 어느 사상보다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인간의 전적부패를 더 강조하기 때문이다.

(1)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정치참여

개혁주의는 카이퍼가 표현한 것처럼 온 우주에 하나님의 주권 바깥에 있는 것은 한 뿔도 없다는 것을 매우 강조한다. 모든 것은 하나님을 통하여 만들어지고 이루어지며 모든 것은 하나님에 의하여 유지되고,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한다. 이런 하나님의 주권에 국가와 정치가 종속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물론 국가와 정치가 동일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모든 국가는 그 구체적인 임무수행은 상당할 정도로 정치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국가에 대한 관심은 정치에 대한 관심을 함축한다. 비록 칼빈은 정치에 대해서 거의 언급하지 않았으나 국가에 대한 그의 의견에서 정치에 대한 그의 의견을 살필 수 있다. 그리고 그는 그의 국가관에 어긋나지 않게 간접적으로나마 제네바 시의 정치에 간여하였다.

비록 최근에 사회에 지배적인 권력이 국가로부터 시민사회로 이동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국가가 개인의 구체적인 삶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결정적이라 할 수 있다. 국가는 개인의 건강과 복지, 교육과 능력개발, 사회발전과 문화 창조에 거의 모든 조건과 환경을 결정한다. 아무리 유능하고 고상한 인물이라도 후진국에서 자란 사람은 별로 신통치 않은 선진국 시민들보다 모든 면에서 불리하고 국제 사회에서 푸대접을 받는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는 것은 하나의 추상적 원칙일 뿐 구체적인 삶에서는 그런 원칙이 전혀 작동하지 않고, 국가 간의 차이에 의하여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다. 그런 점에서 후진국에 태어난 사람들은 자기의 잘못과 무관하게 차별대우를 받으므로 부당하게 억울하게 된다. 그리

고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이라도 약소국에서 태어나면 그 능력을 개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인류 문화에 아무 공헌도 할 수 없고 국제 사회에서 인정도 받지 못한다. 그만큼 국가는 개인에게 중요하다. 그런 국가가 하나님의 주권 바깥에 남을 수가 없다..

비록 그 동안 개인의 권리가 상당할 정도로 신장되고 보호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국가는 시민들에게 처벌이란 이름으로 물리적 폭력을 가할 권한을 독점하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는 국가만이 합법적인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개인의 삶에 경제가 미치는 힘이 막대한 오늘의 상황에서 국가는 개인으로부터 세금을 거두어들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젊은이들을 강제로 전쟁터에 내 보낼 수 있다. 물론 그것들은 모두 시민들의 생존과 복지를 위하여 불가피한 대가라 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개인의 입장에서는 항거가 불가능한 무서운 강제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그런 국가가 그 엄청난 권한을 어떻게 행사하는가에 따라 수많은 사람들의 행복과 불행이 거의 절대적으로 결정된다 할 수 있다. 국가의 그 큰 권한이 올바르게 사용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정치라면 정치는 결코 무시될 수 없는 것이며 하나님의 주권밖에 있을 수 없다.

칼빈은 하나님께서 국가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가공적 예배를 보호하고, 경건의 건전한 교리와 교회의 위상을 수호하며, 우리의 삶을 인간사회에 적응하게 하고, 우리의 행동방식을 시민이 가져야 할 공의에 맞도록 형성하며, 인간 상호간에 화목이 있게 하고, 일반적인 평화와 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 했으며,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합법적일 뿐 아니라 유한한 인간의 삶 전체에서 인간인 받을 수 있는 모든 소명 가운데 가장 신성하고 명예로운 것”이라고 까지 국가의 권위와 위치를 옹호하였다. 그러므로 지상의 통치자는 바로 하나님의 대리자 (vicar)인 것이다.

이렇게 중요한 정치를 하나님의 백성이 전혀 무시해버릴 수 없다. 하나님의 주권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행. 불행이 결정되는 정치를 무시하는 것은 땅위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수행해야 할 임무의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을 방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주권 사상은 하나님의 영광과 논리적으로 직결되어 있다. 개혁주의가 하나님의 영광을 강조하는 것은 주어진 사실을 확인하고 강조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절대주권 사상은 서술적 (descriptive)일 뿐 아니라 당위적(prescriptive)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단순히 하나님의 주권이 정치계에도 지배하기 때문에 기독교가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는 결론은 충분하지 않을 뿐 아니라 위험하기까지 한다. 아무리 기독교인이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더라도 그 동기, 과정, 결과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으면 기독교의 정치참여는 무의미하거나 오히려 부정적이다.

정치가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은 다른 어떤 힘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 권력을 행사하고 싶은 유혹도 그만큼 클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정치가들이 겉으로는 온갖 그럴듯한 대의명분을 내세우지만 가장 깊은 기저에는 권력에 대한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정치에 참여한다. 그 욕망이 너무 크기 때문에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다른 사람들도 속이지만 자신들 스스로를 속일 수 있다. 즉 자신은 권력에 대한 욕망 때문이 아니라 나라를 바로 잡고 국민들에게 올바르게 봉사하기 위하여 자신 한 몸을 내 던진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 정치인도 실재로는 권력에 대한 욕망 때문에 정치에 참여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한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전할 뿐 아니라 스스로도 그렇게 착각할 수 있는 것이다. 동기의 순수성에 대한 철저하고 냉정한 자기 검정과 그 순수성에 대한 신앙 공동체의 인정이 없는 한 아무나 선불리 기독교 이름으로 정치에 참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사실 이렇게 순수한 동기에서 정치를 시작할 만큼 철저하고 성숙한 신앙인은 그렇게 많지 않다.

동기가 아무리 순수하더라도 정치하는 과정에서 그 순수성을 유지하는 것은 순수한 동기를 갖는 것보다 더 어렵다. 권력의 맛을 한 번 보면 그것을 남용하고 오용할 유혹과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올바르지 못한 수단을 사용할 유혹을 계속 받기 때문이다. 역사가인 액튼(John Emerich Edward Dalberg-Acton) 경의 경구처럼 “모든 힘은 부패하고, 절대적인 힘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그리스도인이나 기독교 정당이 정치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들의 권력을 올바르게만 사용하고 조금이라도 오용하지 않기는 그렇게 쉽지 않

다.

그러나 동기나 과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치의 결과라 할 수 있다. 기독교인이나 기독교 정당이 정치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야 정치에 참여한 목적이 이루어진다. 정치가 자신들이 정치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야 하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정치활동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찬양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한국의 경우 이제까지 스스로 기독교인임을 밝힌 정치가가 그의 정치활동 때문에 국민들이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린 경우는 전혀 없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많은 경우에 기독교인이 정치활동을 하는 것이 교회에 이익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재앙으로 나타났다.

(2) 인간의 전적부패와 정치참여

개혁주의는 하나님의 절대주권 못지않게 인간의 전적부패를 강조한다. 그것은 개혁주의의 국가관과 정치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도무지 인간 사회에 국가란 것 혹은 정치란 것이 왜 필요한가? 만약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아무 해도 끼치지 않는다면 국가니, 법이니, 정치니, 윤리니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인간은 범죄로 말미암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것을 즐기게 되었다. 물리적으로 다른 사람을 해치고

죽이며, 경제적으로 다른 사람의 재산을 훔치거나 빼앗으며,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의 권리와 명예를 짓밟는다. 호브스(Thomas Hobbes)의 표현처럼 “인간은 인간에게 늑대”(Homo homini lupus)이며 “만인이 만인을 상대로 전쟁한다”(Bellum omnium contra omnes). 그런 바로 그런 약육강식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국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물론 모든 인간이 항상 이기적인 것은 아니며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항상 해를 끼치는 것은 아니다. 가끔 선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가끔은 선하게 행동한다. 그러나 그런 성선설(性善說)을 전제로 한 모든 정책은 실패하고 만다. 공산주의가 실패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운데 하나는 사유재산 제도만 없애면 모든 인간이 천사가 될 수 있다고 믿은 것이다. 인간이란 원칙적으로 이기적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 자본주의 제도는 그런 데로 어느 정도 작동하고 있다.

칼빈은 국가가 필요 없고 교회의 통치로 충분하다는 주장에 대해서 “악한 인간이 너무 오만방자하고, 그들의 사악함이 너무 철저해서 지극히 엄격한 법으로도 거의 제재할 수 없는데, 그들의 타락이 면죄되고 아무도 그들의 악행을 중지시킬 수 없다면 어떻게 되겠는가?”하고 반문한다. 그 악행을 제재하고 중지시키기 위해서는 국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 칼빈의 생각이었다. 칼빈의 정치사상을 추적하는 가운데 켈리(Douglas Kelly)는 주장하기를 “타락한 인간이 수많은 사람의 복지보다는 개인의 사적 목적으로 권력을 빼앗고, 확장하고, 오용하려는 경향에 대해서 칼빈은 냉정하게 분석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인간의 악은 힘이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한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해를 당하는 사람은 힘이 없는 사람, 즉 약자일 수밖에 없다. 강자가 해를 당하는 법은 없다. 약자란 아예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해를 당하는 사람이 바로 약자라 할 수 있다. 강자가 해를 보는 경우가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그런 것은 특별한 예외의 경우다.

바로 여기에 정의의 문제가 생겨난다. 칼빈은 하나님께서 지상의 통치자들을 임명하신 목적의 하나가 정의며, 정의란 강자의 폭력과 비행으로부터 무죄한 약자를 보호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정의란 무죄한자를 숨겨주고, 감싸 안으며, 보호하고 옹호하고 석방하는 것이다. 그러나 심판이란 경건치 못한 자의 만용에 대항하고 그들의 폭력행사를 제어하며, 그들의 불법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정당하게 해를 보는 것은 엄격한 의미에서 피해라 할 수 없다. 잘못이 없는데도 벌을 받거나, 잘못에 비해서 지나친 벌을 받으면 억울함을 당하는 것이다. 국가는 바로 그런 억울함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다.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 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네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롬 13:3-4) 따라서 국가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고, 정치

의 궁극적 목적도 사회정의라 해야 할 것이다.

국가와 정치는 이와 같이 인간의 악 때문에 정의가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존재하고 필요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그 자체로 정의를 파괴하고 정의에 역행할 위험을 가지고 있다. 국가는 사람을 죽일 수 있을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정치는 그 권력의 사용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의 악은 일반 시민들에게서도 나타나지만 특별히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 부패한 인간이 사용하는 모든 권력은 부패할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사악함이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정도는 그 인간이 행사할 수 있는 권력에 비례한다. 그러므로 국가와 정치가가 그 권력을 오용하면 그것이 가하는 해악은 개인 시민이 가할 수 있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클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정치적 권력은 그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의 도덕성이 확보되어야 올바르게 행사될 것이다. 그러나 그 권력이 크면 클수록 그것을 남용할 유혹은 그만큼 커지기 때문에 그 유혹을 이길 수 있을 만큼 도덕적인 정치인은 찾기가 쉽지 않다. "정치와 윤리"는 "잔인한 친절"처럼 서로 모순되는 것으로 보는 사람이 많다. <걸리버 여행기>를 쓴 스위프트 (Jonathan Swift)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데로 정치는 부패일 뿐이다"라고 했고, <1984년>을 쓴 소설가 오웰 (George Orwell)은 "정치에서 쓰이는 언어란 거짓말을 참말인 것처럼, 살인을 존경스러운 것처럼, 허풍을 확실한 것처럼 들리게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라 하였으며, 미국의 논객 멘켄 (H.L.Mencken)은 "경

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정직한 도둑을 기대할 수 없는 것 같이 민주주의에서 좋은 정치인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독설을 퍼부었다. 정치가가 윤리적이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반영한다. 흔히 거짓말하고 술수를 쓰는 사람을 보고 그 사람 "정치한다" 한다.

그러므로 시민의 사악함을 통제하기 위하여 국가와 정치가 필요하지만 바로 그보다 훨씬 더 사악할 수 있는 국가와 정치인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가 또 필요하다. 국가가 어떤 형태의 정부를 갖는가는 이 때문에 중요하다. 칼빈은 정부의 형태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한 사람이 권력을 독점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다. 구약 미가서 5:5에 대한 주석에서 왕위세습제는 자유와 조화될 수 없으며 질서가 있는 정부는 사람들의 일반투표에서 생겨날 수 있다고 했다. 역사학자 팜(Franklin Palm)은 하나님의 절대성과 모든 다른 권한에 대한 저항권을 강조하는데 큰 공헌을 하였고 왕들의 권력을 억제하고 선거로 선출된 국민의 대표들의 권한을 확대하는데 크게 이바지 했다고 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통치자들을 개인들이 제거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했다고 했다. 그리고 그것은 결과적으로 많은 혁명가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독재에 항거할 수 있는 권한을 그들에게 주었다고 믿도록 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칼빈은 민주주의와 귀족주의를 혼용하는 제도를 선호했다. 민주주의는 인기에 영합하려는 경향 때문에 사회가 문란해질 수 있고, 전제군주 제도는 권력의 남용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므로 양자를 적절히 혼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



각이었다. 그러나 역시 혼자서 통치하기보다는 여러 사람이 같이 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 하였다.

민주주의의 약점이나 전제군주의 독제가 가진 위험을 지적한 것은 역시 인간의 근본적인 부패에 대한 철저한 인식 때문이다. 칼빈의 이런 사상은 장로교 교회 정치에도 반영되었고 민주주의 정치제도에도 전제되어 있다 할 수 있다. 교회의 권력이나 국가의 권력이 한 두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으면 부패할 확률이 매우 크다. 비록 액튼은 카톨릭 신자였지만 그의 주장은 사실 인간의 전적 부패를 강조한 칼빈의 사상을 대변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늘날 우리가 민주주의를 그것이 가진 여러 가지 결점에도 불구하고 모든 정치제도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선호하는 것은 다수의 의견이 소수의 의견보다 더 훌륭하기 때문이 아니다. 대부분의 경우 다수의 의견은 소수 전문가들의 의견에 비해 매우 어리석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민주주의를 선호하는 것은 그것만이 정치적 권력의 부패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권력의 분립, 주기적인 선거, 정권교체 등을 통하여 권력이 계속 감시를 받아야 부패해지지 않을 수 있다. 그러므로 민주주의 제도를 정당화하는 핵심적인 근거는 인간의 전적부패란 개혁주의의 인간관이라 할 수 있다. 칼빈은 “왕들이 가장 정의롭고 옳은 것으로부터 벗어날 만큼 그들의 의지를 절제하는 일은 매우 드물고 어느 정도가 충분한지를 알만한 예민함과 지혜를 타고 난 왕이 드물다” 하였다. 인간의 근본적인 악을 믿는 칼빈은 권력의 독점이 가져올 수 있는 오류를 막는 길이 민주주의란 사실을 의식하였고,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권력남용에 대한 견제란 사실을 인식한 것 같다

칼빈은 교회의 공적 예배와 경건한 생활을 보장하는 것도 국가의 임무 가운데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보았다. 물론 그것은 그의 시대를 어느 정도 반영하는 것이지만 민주주의가 보장될 때만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은 매우 분명하고 북한이나 중국의 경우를 보면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절실한가를 알 수 있다.

오늘날 기독교가 정치에 참여한다면 그 가장 중요한 임무 가운데 하나가 민주주의를 철저히 유지하고 보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올바른 기능하는 민주주의에서만 사회의 정의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고 신앙의 자유가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다.

4. 한국의 구체적인 상황과 기독교의 정치참여

어떤 이론도 그대로 현실에 적용될 수 없다. 물이 0도에서 어느 경우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거의 없고 4도에서 부피가 가장 작아지는 경우도 그렇게 흔하지 않다. 물이 얼고 부피가 늘어나는 것은 온도 외에도 기압 등 다른 요소들이 같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자연과학 이론도 구체적인 상황에 그대로 적용하기가 어려운데 인간현상, 사회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은 그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대로 적용되기가 어렵다. 인간현상 혹은 사회현상 가운데서도 가장 복잡한 것이 정치적 현실이다. 그러므로 어떤 정치적 이론도 모든 정치상황을 설명할 수 없고 그것에 기초해서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으며 그대로 실행에 옮기기가 힘들다. 그러므로 “현실경제,” “현실윤리”란 표현은 없지만 “현실정치”란 표현은 일상적이 되었다. 그만

큼 정치란 현실은 그 자체로 독특하고 이론과는 많은 괴리를 보이고 있다 하겠다.

앞에서 개혁주의 기독교인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정치도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으므로 기독교는 정치에 참여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 정의의 구현,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도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교회 혹은 한국 기독교가 구체적인 한국 정치에 참여해야 하며 참여할 수 있는가? 한국 교회가 정치에 참여했을 때 과연 우리의 구체적인 정치적 현실이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가? 만약 정치에 참여했을 때 하나님에게 영광이 돌아가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사회정의의 구현에 공헌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하겠는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과 정치에 참여해서 그 참여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다.

(1) 정치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우선 정치에 참여한다는 사실 자체가 한국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한다. 물론 거의 모든 나라에서 정치란 부정과의 어느 정도의 타협을 함의하고 있으므로 도덕적으로 긍정적 인상을 주지 못한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그 정도가 다른 선진국들에게 비해서 훨씬 더 심각하다. 한국에서는 어떤 사람이 정치하는 것은 사회정의나 약자들의 복지 등 공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개인의 권력욕 때문에 한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그것은 이제까지 우리나라 정치가들이 그런 모습을 너무나 분명

하게 보여 주었기 때문이다.

사회적 인식이 이렇게 부정적인데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정치에 참여하면 그 인식이 갑자기 바뀌지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겠는가? 어떤 과정을 거치든지 한국의 현실정치가 충분히 성숙해서 정치활동을 하는 것은 개인의 이익을 초월할 뿐 아니라 오히려 희생하면서 공익을 위하여 노력한다는 인상이 사회에 일반화될 때까지는 한국에서 기독교 정치참여는 그 이론적 목적에 역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2) 부정적 인상을 고칠 수 있는 역량 부족

물론 기독교가 정치에 참여함으로 정치에 대한 이런 잘못된 인식을 바꿀 수만 있다면 한 번 시도해 볼만도 하다. 그러나 한국 기독교가 지금 그런 정치적 역량을 가지고 있는가? 한국 교회는 훌륭한 인재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들을 기독교 전문가로 양성하는 데는 관심도 없었고 따라서 별 효과도 거두지 못했다. 그것은 특히 정치 분야에 더 두드러진다. 지금 한국 기독교가 기독교적 원칙에 입각해서 훌륭하게 정치함으로써 사회정의를 구현하는데 크게 공헌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할 수 있는 정치가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할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 기독교는 지금 상황에서 정치에 참여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고, 만약 참여한다면 오히려 그 목적에 역행하여 교회에 엄청난 손해를 끼칠 것이다.

개혁주의 정치를 논의할 때 우리는 흔히 네덜란드의 카이퍼를 예로 든다. 물론 그는 철저한 개혁주의자였고 그의 정치활동

은 그 사회와 교회에 큰 이익을 가져다주었다. 그의 교육개혁은 지금도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그의 영역주권 사상은 지금도 그 나라의 여러 정책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가 활동할 때 시민들이 정치를 보는 눈은 오늘날 한국에서 정치가 만들어 놓은 인상과는 전혀 달랐으며 카이퍼의 신앙, 신학, 정치적 능력은 특별하고 뛰어났다는 사실이다. 카이퍼가 기독교적 정치를 시도했고 어느 정도 성공했다 해서 다른 나라에서도 이무 기독교인이나 정치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는 구체적인 상황과 현실을 너무 무시하는 잘못을 범하는 것이다.

기독교 정치가가 어느 정도 열매를 거두려면 정치적 능력과 신앙적, 도덕적 자질을 다 같이 갖추어야 할 것이다. 아무리 능력이 출중해도 철전한 신앙적 인격과 도덕성을 갖추지 못하면 기독교 정치인이라 할 수 없고, 아무리 훌륭한 신앙과 도덕적 인격을 갖추어도 정치적 능력이 없으면 정치인이라 할 수 없다. 불행하게 한국 교회는 그런 정치인을 양성하지 못했다.

(3) 한국 정치와 시민의식의 미숙

어느 사회이든 법률과 재판으로만 통치될 수 없으므로 정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즉 구체적인 현실이 너무 복잡해서 어떤 원칙이나 법률도 그 모든 문제를 다 규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인간의 한계와 사악함, 인간 현실의 복잡함은 도덕적 원칙의 타협과 원칙의 다양한 해석과 적용을 불가피하게 한다. 즉 정

치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치 현상은 그 자체로 여러 가지 약점이 있다. 그런 약점의 상당부분은 정치가 상대로 해야 하는 대상이 윤리적으로 불완전한 인간들이란 사실 때문에 불가피한 것들이다. 사회학자 베버 (Max Weber)는 정치가는 “사람들의 평균적 약점” (average deficiency of the people)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사람들의 평균적 도덕성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정치에서는 타협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예수님의 산상보훈과 같은 원칙적인 윤리로는 정치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카이퍼가 집권했을 때 그 때 용인되고 있던 암스테르담의 사창굴을 폐지해야 하는가가 큰 문젯거리였다. 오랜 고민 끝에 기독교 정당이었던 반혁명당(Anti-Revolutionary Party) 정부는 그 사창굴을 그대로 허용하기로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곳을 폐지하면 창녀들이 주택가로 숨어들어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성병전염을 통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네덜란드는 몇 년 전에 사창을 허용하는 대신 아예 공창제도를 도입하고 말았는데 보수적인 기독교 정당들도 크게 반대하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구체적인 현실은 네덜란드보다 훨씬 비민주적이고 비기독교적이며 정의확립이 뒤져 있고 시민들의 민주의식 수준은 훨씬 낮다. 몇 년 전 우리나라에서도 성매매금지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전혀 실효를 거두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성범죄만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법을 제정

하는 국회가 스스로 만든 법을 어기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국민들도 이를 심각하게 비판하지 않는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기독교가 기독교 이름으로 현실정치에 참여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나아가서 이런 현실을 고칠 만한 역량을 한국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가? 이에 긍정적인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정치참여의 궁극적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과 정의구현은 전혀 달성할 가능성이 없는 것이다. 아직은 한국 기독교가 현실 정치에 참여할 상황이 되어 있지 않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그 보다 더 심각한 것은 한국 유권자들의 미숙한 정치의식이다. 아직도 정치가의 자질보다는 지연, 학연, 혈연 등 비본질적인 연고에 입각해서 투표하고 있다. 그리고 아직도 막대한 돈을 써야 선거 조직을 운영할 수 있고, 거기에 많은 부정이 개입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이 국가 전체와 궁극적으로는 자신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자해행위를 할 만큼 우리 시민들 다수는 미숙하고 비합리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철저히 양심적인 그리스도인이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정치인으로 뽑힐 수 있겠는가?

개혁주의는 기독교가 원칙적으로는 정치에 참여할 수 있음을 가르치지만, 개혁주의에 투철한 사람은 적어도 지금 한국에서 현실 정치에 참여하기는 매우 어렵게 되어 있다. 우리 시민과 정치계가 어느 정도 성숙해서 지나치게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을 때까지 한국 기독교가 정치에 참여

하는 것은 보류될 수밖에 없다.

5. 허용될 수 있는 정치참여

그렇다면 한국 기독교는 때가 성숙해질 때까지 기다리기만 해야 하는가? 그래서 안 된다. 한국 정치가 언젠가는 충분히 성숙해진다는 보장도 없거니와 그 때까지 마냥 기다는 것도 정치와 같이 중요한 것에 대한 기독교의 임무를 게을리 하는 것이다. 그 동안 하나님의 주권도 계속해서 무시되지만 그 보다 더 약자에 대한 정의와 복지도 충분히 보장되리라는 보장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국 기독교는 어떤 형태로든 현실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우선 미래의 정치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은 중요하다. 다른 모든 전문가와 마찬가지로 정치가도 전혀 훈련 없이 저절로 생겨나고 자라지는 않는다. 확실한 신앙과 도덕성을 갖춘 유능한 젊은이들을 뽑아 의도적으로 동기를 부여하고 교육과 경험을 쌓도록 도와서 훌륭한 기독교 정치가가 나올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공의정치포럼>이 그런 것을 시도하고 있으나 한국 교회는 별로 관심을 쓰지 않는다. 익은 열매를 따먹으려고만 하지 나무를 키우려 하지는 않는 것이다.

그러나 그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현실의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도 정의구현에 공헌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지금의 한국 상황에서는 기독교 시민운동이 바로 그런 것이라 할 수 있다. 시민운동의 특징은 비판

과 견제에 있을 뿐 법적인 권한도 없고 특권도 없으며 따라서 책임도 크지 않다. 그러므로 시민운동은 권한행사에 따르는 부정의 유혹을 받을 필요가 없고 구태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서까지 불의와 타협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민주주의에는 올바른 정책을 세워 잘 운영하는 것 못지않게 권력의 남용과 오용을 견제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비판과 견제 혹은 대안제시를 목적으로 하는 시민운동은 아주 훌륭한 민주주의적 정치참여라 할 수 있다.

법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사실은 기독교 정치참여에 가장 적합한 것이라 할 수도 있다. 기독교 정치는 스스로를 낮추고 희생하여 국민을 섬기는 것을 그 특징으로 삼아야 한다. 권력을 향유하고 행사하는 현실 정치는 그런 점에서 기독교에 가장 적합한 정치활동이라 할 수 없다. 정치의 궁극적 목적이 평화의 유지와 사회정의의 구현이라면 이에 어긋나는 국가의 모든 제도, 정책, 법집행을 감시하고 그 잘못을 지적하여 고치도록 하는 것은 훌륭한 정치참여가 아닐 수 없다.

한국은 아세아에서 가장 시민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나라이고, 따라서 시민사회가 가장 착실하게 성장하고 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역사적 원인이 작용했지만 기독교의 공헌이 매우 크다 할 수 있다. 제도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일본의 민주주의는 우리에게 앞서지만 일본은 아직도 시민사회라 할 수 없다. 그 이유로는 천황제도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이 기독교 세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기독교는 이 세상 나라를 초월하는 하나님 나라를 중요시 하고 이 세상의 법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기 때문

에 자연적으로 이 세상의 권력과 제도에 비판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는 시민사회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고, 시민사회는 모든 민주주의 사회가 지향하는 것이므로 이를 위한 기독교의 역할은 하나님 영광에 도움이 될 것이다.

6. 기독교 정치참여와 교회의 정치참여

개혁주의가 정치참여를 인정한다 하여 교회가 정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흔히 말하는 “정치와 종교의 분리”는 “국가와 교회의 분리” (Separation of State and Church)를 잘못 이해한 것이다. 종교로서의 기독교는 어떤 형태로이든 간에 정치에 참여할 수 있지만 종교기관으로서의 교회는 정치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국가가 교회의 정치나 예배 의식, 교리 같은 문제에 간섭할 수 없는 것처럼 교회도 국가의 정치적 문제에 개입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러나 교회도 어떤 경우에는 정치적 발언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정치가 너무 비도덕적이고 정의에 어긋나게 법을 제정하고 집행한다면 교회는 교인과 시민들의 양심을 대변하여 이에 비판하고 필요하면 항거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조심해야 할 것은 교회의 비판과 항거는 어디까지나 발언에 국한하고 너무 쉽게 행동으로 나서지 않는 것이며, 비판적발언도 국가와 정치의 잘못이 너무 분명하여 양심을 가진 모든 시민들이 다 비판적이되 다만 압력과 핍박이 두려워 감히 반대하지 못할 경우에 국한하여야 하는 것이다. 다만 나치의 만행처럼 극악한 독제에 대해서는 행동으로 저항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가의 시책이나 정치가 일반 시민들에게는 별로 부정적이지 않지만 기독교에게만 불리할 때는 정치적 행동을 지극히 조심하는 것이 지혜로울 것이다. 교회가 기독교의 이익을 위하여 어떤 형태로든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사회로부터 이기적이란 비판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께 별로 영광이 되지 못할 것이다. 심지어 복음전파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한 정치적 발언이나 행위도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정치에는 동기만 훌륭해서는 안 된다. 정치적 행위의 결과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한다. 베버는 정치의 윤리는 동기의 윤리 (Gesinnungsethik)이 아니라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책임윤리 (Verantwortungsethik)라야 함을 강조하였다.

기독교의 정치참여는 종교 기관으로서 교회가 아니라 신자 개인과 정당이나 시민단체처럼 신자들의 공동체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정상이다. 그리고 “기독교”란 명칭을 사용하는 것에도 극히 조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때만 사용하는 것이 지혜로울 것이다.